

# 군산, 짬뽕 거리 관광 명소화 사업 추진

### 총 11개소 영업자 확정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등 연구용역 통해 근대역사 문화와 연계해 정비 계획

군산시가 골목상권 활성화 및 먹거리 관광을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짬뽕 특화사업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도에 국가예산 7억5천만원을 확보, 총 사업비 15억원으로 짬뽕 특화거리 조성 추진 대상 지역으로 근대역사 박물관 인근 동령길과 장미길을 선정할 바 있다.

현재 빈해원을 비롯한 기존업소 3개소를 포함해 총 11개소의 입점 영업자를 확정하고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및 위생서비스 등 개선사업 지원, 특화거리 내 입점 영업소간관정비, 상수도 사용료 감면지원, 식재료 공동구매 구축 운영·지원을 할 계획이다.

지난 4월부터는 특화거리 내 상가변영회 및 입점자 간담회를 개최해 짬뽕 특화사업 추진사항 및 방향 설명,

특화거리 내 원활한 입점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한 토의를 했으며, 앞으로 입점자 및 상가 건물주 등의 간담회는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짬뽕 특화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한 육성전략 및 브랜드명 등 개발, 연구용역을 진행해 군산시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짬뽕과 특화거리 브랜드명 선호도 조사를 실시, 군산 짬뽕 브랜드명은 '군산짬뽕', 거리 브랜드명으로는 '짬뽕시대'가 선정, 지난 7월 9일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향후 연구용역 최종 결과를 바탕으로 특화거리조성은 도로·인도, 가로

경관 정비 및 음식점 안내 키오스크 등 편의시설 설치 등 근대역사 문화와 연계해 정비 할 계획이다. 더불어 짬뽕 특화거리를 주제로 한 짬뽕페스티벌 개최와 유명 셰프 초빙 이벤트 진행, 맛의 체험 관광 지도 제작·홍보, 입점자 경영 컨설팅 및 친절교육, 블로그·SNS·TV 방송, 홈페이지 활용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오수자 위생행정과장은 "짬뽕 특화거리 조성을 통해 관광객들로 하여금 군산의 짬뽕거리가 관광명소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기자

# 여름휴가지 '익산 농촌체험휴양마을' 각광

### 금강·삼기권역 등 7곳 물놀이장·각종 프로그램 운영

익산의 농촌체험과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름 휴양지가 각광받고 있다.

1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역의 농촌체험휴양마을 7곳을 중심으로 가족과 함께 농촌체험을 즐기며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금강권역인 옹포와 성당, 용안지역에 분포해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자연 속 생태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

두동편백마을은 주민들이 직접 조성한 편백나무숲에서 산림욕과 식물 관찰, 자연놀이 등을 체험하며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숲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옥수수과 고구마 등 각종 농산물 수확 뿐 아니라 마을 양봉농가에서 나오는 밀랍(벌집)을 이용해 천연 초를 만드는 체험까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미륵사지가 위치한 삼기권역에 자리 잡은 풀빛향기 송정마을도 눈여겨 볼만 하다. 이 마을은 자연에서 얻어

지는 재료를 이용해 천연염색과 천연 비누, 압화, 디퓨저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고 있고 대나무가 많은 죽청마을에서도 농산물 수확과 두부만들기 체험 등 자연 속 친환경 먹거리를 즐기며 추억을 쌓을 수 있다.

성당포구와 산들강우포, 용머리고을, 함라두레마당 등 4곳 마을에서는 어린이 물놀이장도 운영한다. 자격증을 보유한 안전 관리자가 상시 배치되며 이용료는 최대 30%까지 할인된다. /익산=장인천 기자

### 운동목 군산시 부시장 관내 폭염대비 주요시설 점검

운동목 군산시 부시장이 본격적인 무더위를 맞아 관내 폭염대비 주요 시설을 점검하는 등 현장 행정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31일 운 부시장을 비롯해 시 담당부서 직원들은 콜링포그(Cooling Fog) 설치현장과 얼음비치 버스승강장 등을 방문해 본격적인 폭염에 대비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에 처음 설치된 콜링포그는 깨끗한 수돗물을 노즐을 통하여 분사해 주위 온도를 최대 5도까지 낮추고 미세 먼지를 저감해주는 친환경 장치이다.

또 시는 폭염과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는 콜링포그를 설치한 군산에솔의전당과 수송동 은행나무사거리 현장을 찾아 콜링포그 가동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시민들이 잠시나마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얼음을 비치한 수송동 승강장과 역전종합시장 현장을 찾아 직접 살피기도 했다.

현재 군산시는 버스 주 이용객이 노약자와 학생인 만큼 여름철 무더위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이용객이 많고 보행에 지장이 없는 승강장 36개소를 지정해 얼음을 비치하고 있다.

운동목 부시장은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폭염이 시작되는 만큼 주기적인 시설물 점검과 모니터링 등 현장 중심의 폭염대책을 추진해 시민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군산시, 문화재야행 축제 준비 점검

문화가 흐르는 관광도시 군산시가 2019 군산문화재야행의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1일 운동목 군산시 부시장은 군산 근대역사박물관과 월명동 일원을 돌며 '2019 군산문화재야행' 최종 준비 상황 점검에 나섰다.

'2019 군산문화재야행'은 지난해 8월과 10월, 2번에 걸쳐 진행 되었던

것과 달리 올해는 무더운 여름의 열기를 식히기 위하여 8월 첫째 주, 셋째 주 금요일~일요일에 펼쳐지며, 군산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방문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특히 군산 시내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문화재를 개방하는 것은 물론 개방된 문화재 안에서 즐길 다양한 프

로그램과 문화재와 문화재 사이를 이어주는 거리프로그램 등 지역의 예술 단체와 시민, 학생들이 참여하는 70여개의 전시·공연·체험 문화콘텐츠가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근대역사박물관에서 동국사까지 2km에 이르는 구간에 청사초롱을 설치한 빛의 거리를 확대 조성하고, '영화의 거리'에 추가 조성 된 경관 조명과 근대역사박물관에 설치된 루미나리에는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할 계획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 익산시, 중국인 관광객 유치 노력 성과

### 한중무술문화교류단 850여 명 익산 방문, 지역경제 활성화

익산시가 중국인 관광객 수백 명을 유치하는 등 관광객 유치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한중무술문화교류축제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 850여명을 유치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익산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2019 글로벌무술문화교류축제의 태권도 관계자와 참가자 및 가족 850여 명이다. 이들은 군산항으로 입국해 익산시

주요 관광지인 미륵사지, 보석박물관, 교도소세탁 등을 돌아본 후 태권도원에 입소했다.

특히 이들은 익산 주요 관광지 탐방을 비롯해 익산에서 쇼핑을 진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줬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스포츠 및 문화예술행사와 관련된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인원 기자



김종남 군산시 수협 조합장이 폭염의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민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연일 강행군을 펼치고 있다.

# 김종남 군산수협 조합장 어민 현안문제해결 '선봉장'

### 농심의 꽃새우 미국산 수입포기 결정 등

김종남 군산시 수협 조합장이 폭염의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민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연일 강행군을 펼치고 있다.

김 조합장은 최근 들어 연일 이어지는 조망협회 꽃새우 사용과 서해EZZ 골재채취단지 신규 지정 등 지역 어민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했다.

먼저 지난달 30일 오후 농심은 새우감의 원료인 꽃새우 미국산 수입을 전격 포기하고 군산을 비롯한 인근 연안에서 잡히는 꽃새우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심의 이런 결정의 배경에는 지역 어민들과 김종남 조합장과 군산수협 관계자들의 발 빠른 대처가 문제해결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산 꽃새우 수입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 어민들의 고충을 전해들은 김종남 조합장은 즉시 모든 업무를 미루고 국회와 정부 부처를 찾아다니며 지역 꽃새우 사용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다음으로 김 조합장은 7월 30일 서해EZZ 골재채취단지 신규지정

공청회 현장을 찾아 1천여명의 어민들과 함께 공청회 자리를 위한 집회에 참여했다.

결국 공청회 주관 기관인 해양기초자원 협동조합은 서해EZZ 골재채취단지 지정 해역이용영향평가서 공청회를 진행하지 못했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 A씨는 "농심의 꽃새우 미국산 수입포기 결정과 공청회 지지 규탄 집회에서 알 수 있듯이 김종남 조합장은 어떤 부분보다도 군산 어민들의 생존권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아 감사하다"며 "이제는 어민들과 조합원들과 힘을 합쳐 군산수협도 발전시켜 나가자"고 전했다.

김종남 조합장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골재채취단지 지정 공청회에 참여해주신 지역 어민 및 조합원 여러분들과 새우감 원료인 꽃새우 사용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신 김관영 의원님, 강임준 시장님 등 군산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조합장은 "군산수협도 조망협회와 함께 꽃새우의 품질 개선 방안을 찾아 기업과 어업인들도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산=김정훈 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전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